

고향에 온 처녀



김지혜

1

방금 열차에서 내려 역을 나선 수연이는 맑은 공기를 한껏 호흡했다. 어엿한 식료가공전문가가 되어 돌아온 사랑하는 딸을 위해 고향땅이 부어주는 뜨거운 사랑의 입김인듯 수연이의 가슴은 절로 후더워올랐다.

비록 낮익은 얼굴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오가는 고향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보내기도 하고 옛적의 추억을 더듬으며 거리의 모습을 유심히 둘러보기도 했다. 거리는 몰라보게 변하였다.

새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일떠섰고 현대화된 공장들과 학교, 문화봉사망들이 해빛에 창문을 번쩍이고있었다.

비약하는 어머니조국과 더불어 젊어지고 문명해지는 고향의 모습이었다.

수연은 무궤도전차정류소로 향하였다.

마침 바다우를 솟구치는 굵둥어그림이 새겨진 무궤도전차가 정류소로 미끄러져왔다. 무궤도전차를 탄 사람들의 웃음낯친 밝은 표정에는 행복과 희망,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있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고향사람들이 만든 무궤도전차란 말인가!

수연이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우리 고향에서 제일 큰 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제힘으로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만들어 거리의 모습을 한층 밝아지게 하였던 것이다.

아, 창조로 들끓는 내 고향!

무궤도전차에서 내린 수연의 눈앞으로는 우중충하게 솟아 그 위용을 자랑하는 비련합기업소가 고향의 모습을 대표하여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그런가 하면 푸른 추녀를 활짝 펼치고 금시라도 날아갈듯 한 국수집과 나란히 키를 솟구며 현대적미감에 맞게 일떠선 로동자들을 위한 멋쟁이고층

아파트들이 눈길을 끌었다. 한참이나 고향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던 수연이는 큼직한 회전문이 빙그르르 돌아가는, 우에 전자식소개글이 쉬임없이 흐르는 상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쉬임없이 흐르는 상품소개글이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못 견딜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수연이는 맑은 유리로 된 회전문을 통해 상점안으로 들어섰다.

현대적미감에 맞게 장식한 상점안은 시원하면서도 손님들에게 편리하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식료품들이 진렬되어있었다.

식료가공전문가라는 자각이 있어서인지 수연이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식료품대앞에서 멎었다.

사랑, 과자로부터 빵가공제품, 젓가공제품, 청량음료 등 수십종류의 식료품들이 갖가지 포장으로 저마끔 제 모습을 뽐내는듯 한 매대앞에서 수연이는 매 상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식료품의 절반이상이 평양에서 생산된것들이었다. 혹시 우리 고향의 송흥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없는가 하여 세세히 상품들을 훑어보던 수연이는 그만에야 《아이, 〈웃음꽃〉!》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매대구석에서 겨우 《웃음꽃》 상표를 단 송흥식료공장 빵을 찾아보고 너무 기뻐 탄성을 내질렀는데 손님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던 봉사원처녀가 무슨 일인가 하여 수연이에게로 시선을 박았다.

수연은 그만 얼굴이 흐려지고말았다. 다른 빵들과는 너무나도 차이나게 포장이며 질이 한심했던 것이다.

(과연 이 빵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의 마음속 의문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듯 봉사원처녀가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수연이에게로 다가왔다. 봉사원처녀는 아직도 수연이의 눈길이 가있는 《웃음꽃》 빵을 보며 《이 빵을 사려고 합니까?》하고 물었다. 수연이는 대답대신 머리를 저으

며 봉사원처녀에게 물었다.

《그 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봉사원처녀는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그저 드문히 가다가 멀리 이동작업을 나가는 사람들이나 농촌동원을 나가는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없어요.》

《그런데 팔리지 않는 빵은 뭇하러 굳이 매대에 놓고…》

봉사원처녀는 말끝을 흐리는 수연이가 이상한듯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탄식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어찌됐나요, 송홍식료공장이야 우리 고향에 있는 공장이 아니나요?》

《그래서 안 나간다는걸 알면서도…》

수연은 자기가 모욕을 당한것처럼 분했다. 눈길을 떨구고 고개를 숙이고있던 수연은 돌연 머리를 들어 봉사원처녀에게 격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절 다 사졌어요!》

《예?!》

봉사원처녀는 수연이가 흥분한 까닭을 이해 못한 채 매대의 빵을 모조리 비닐구렁이에 담아주었다.

수연이는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상점문을 나섰다.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손에 든 빵구렁지가 천근무게로 팔을 잡아당기는듯 하였다. 그것을 느끼며 걷느라니 무릇 지나간 추억이 되새겨진다. 꼭 5년전 이맘때다. 그날은 수연이가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으로 떠나던 이른 봄날이었다.

그날 수연이는 아버지에게서 송홍식료공장 빵을 한구렁지나 받았다.

《자, 도중에 먹을 간식으로서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만든 빵을 준비했다.》

구렁지를 받으며 수연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아버지두 참, 찰차칸에서 이런 빵을 어떻게… 안 먹겠어요.》

구렁지를 도로 내미는 수연이에게 아버지는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래서 주는거다. 맛으로 보나 모양과 포장으로 보나 불품없는 이 빵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과 같이 이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송홍식료공장 〈웃음꽃〉 빵이 만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기만을 바랐다.

수연아, 대학으로 떠나는 너에게 아버지 부락하고싶구나, 우리 공장빵이 진짜 〈웃음꽃〉 빵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날의 모습이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수연이는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불치의 병으로 너무도 때이르게 돌아간 아버지였다.

그때 왜 아버지의 가슴이 후련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가?

수연이는 지금 들고가는 빵구렁지가 상점에서 산것이 아니라 5년전에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빵구렁지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더욱 무겁게만 느

껴지는것인지도 몰랐다. 빵구렁지는 수연이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하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앞에서 하지 못한 대답을 너는 고향사람들앞에서 실천으로 해야 한다.》

2

오늘 빵직장에서는 모두의 관심속에 현장기사인 수연이가 새롭게 만든 여러가지 빵형타로 첫 시제품을 만들었다. 빵로를 열었을 때 각이한 모양으로 노릿노릿하게 부풀어오른 먹음직스러운 달큰하고 고소한 빵의 향기를 맡는 순간 수연은 얼마나 기뻐던가! 그것을 위해 선반공이며 단조공 지어는 공에 가까이 만나 송홍식료공장 특유의 독특한 빵을 만드느라고 뛰어다닌 보람이 오늘에야 비로소 그 빛을 보려는것 같았다. 현호는 환희의 그 순간에 누구보다 오늘을 위해 애쓴 수연이의 얼굴부터 바라보았다. 한옆으로 돌아서있는 수연이의 눈가에 어느새 맑은 눈물이 맺혀 반짝였다.

(그럴테지! 오죽 기뻐하면…)

수연이의 그 모습에 현호도 금시 눈앞이 뿌예졌다.

거들거들 튀어나오는 사람들의 《히야!》하는 탄성소리를 들으며 현호는 수연이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완전한 이거요, 이거!》하고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이며 별선 웃었다. 그런데 방싯 웃음으로 화답할줄 알았던 수연이가 뜻밖에도 아래 입술을 꼭 깨물더니 고개를 천천히 가로짓는것이였다.

현호는 그만 의아해졌다. 그럼 방금 보인 눈물은 기뻐서가 아니란 말인가?

《갑자기 왜 그러오?》

현호의 의아한 물음에 대답을 앓던 수연이는 모여섰던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야 꽃잎모양의 형타에서 빵을 뽑아 뒤집어보이며 현호에게 말했다.

《이걸 좀 봐요, 빵 웃면은 매끈하면서도 닭알노란자위처럼 노랗게 구워졌는데 밀면은 지집판에 구운 군빵처럼 거칠면서 거뭇거뭇하게 약간 탔어요.》

《아니, 그것때문에 그러오? 그래도 이전 빵엔 대비도 안되오.》하고 현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수연은 《아니, 안돼요.》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아직도 따뜻한 시제품빵들을 마치 보물처럼 어루쓸었다.

현호는 수연이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씩 웃었다.

《동문 이 자그마한 빵직장에서 만든 빵을 가지고 큰 식료공장들의 빵들과 경쟁을 하자는거요? 난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오.》

순간 수연이의 쌍까풀진 오목눈에서 찌릿듯 한 빛이 현호의 얼굴에 날아와 박혔다.

《동문… 그게 진심이에요요?》

《아, 사실이 그렇지 않소? 지금 이 빵은 지난시

기의 빵에 비하면...》

현호가 하려는 설명을 도중에 끊어버리며 수연은 절절하게 말했다.

《현호동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만들자던 동무가 아니예요?》

현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실 오늘의 시제품을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그로서는 공장빵을 개선해보겠다고 형타요, 우유가루요, 발효제요 하면서 산지사방으로 뛰어다니던 수연을 볼 면목이 없었다.

현호는 그래서인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해요.》

수연이는 현호앞으로 다가갔다.

《난 우리 공장 빵이 한순간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고싶지 않아요. 오늘 시제품생산을 놓고봐도 과학적인 온도조절체계를 결정적으로 세워야 해요. 온도는 우리 식료공장에서 생명이나 같아요. 그런데 그 온도측정과 조절에서 차꾸 오차가 생기니 발효에서부터 열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생산이 완벽하지 못한거예요. 만일 이 빵로에 그 장치를 설치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결함은 쉽게 극복했을거예요.》

현호는 수연이를 처음보듯 찬찬히 바라보았다. 체소한 몸집과 크지 않은 키, 동그스름한 얼굴이며 눈초리가 쳐들린 쌍꺼풀의 야무진 오목눈, 야심만만한 코마루며 꼭 다물린 입술... 아름답다가보다 당돌한 소녀처럼 귀여움을 자아냈다.

중학생교복을 입혀놓으면 중학생이라고 해도 끈이 믿을 이 처녀의 작은 가슴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차있는가.

현호는 《수연동무, 욕망 하나만으로 모든 일이 성사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동무가 생각하는 그 온도조절체계는 높은 급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요. 더우기 우리 공장실정에 맞게 한다는건 힘든 일이요.》라고 말하고싶었지만 보수주의감투를 씌울것 같아 아무 대꾸도 없이 밖으로 나가고말았다.

홀로 남은 수연은 나직이 긴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고인 그의 눈앞으로는 현호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안겨왔다.

졸업을 앞둔 중학시절의 어느날이었다.

좋은일하기를 하느라고 석천령에 오른 그들은 장마비에 패인 도로를 정리하느라 돌을 퍼고 구우에 흙을 깔았다. 일부 녀학생들은 잡풀도 뽑고 회칠도 하였다. 그날따라 누나를 따라온 수연이의 남동생 수진이가 통통 뛰는 메뚜기를 쫓아 한발작두발작도로기슭을 향해갔다. 자기 일에 열중하고있던 학생들이 수진이를 보는 순간 하나같이 《앗!》하고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가 위험했던것이다. 바로 수진이가 서있는 도로기슭의 벼랑우에서 장마비에 불

어난 돌이 떨어지고있었던것이다. 그때 현호가 비호같이 몸을 날리며 수진이를 안고 넘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물을 길어오던 수연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말았다.

현호는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때 상한 다리는 지금도 가끔 현호에게 아픔을 주었다.

그 다리로 하여 수연은 현호앞에 무거운 죄의식과 도덕적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수연은 직장장녀인의 말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이, 아무것도 아니예요. 저... 직장장동지, 아무래도 온도조절장치가 있어야겠어요.》

《그런 문제는 현호동무가 얼마든지 풀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현호동무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호동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날 현호를 만난 수연이는 가방에서 최근 프로그램기술을 서술한 두터운 새 책을 몇권 내놓았다.

《아니, 이걸?》

어리둥절하여 바라보는 현호에게 수연이는 명랑하고도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호동무, 자동온도측정 및 조절장치를 만들수 있지요?》

현호는 순간 의아한 눈길로 수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 수연이의 눈빛을 피하며 《내가 어떻게 그런 최신형의 프로그램장치를...》하고 말꼬리를 얼버무렸다.

《아이, 그만한 배짱도 없이 공불 하나요? 동무가 만든 축전지관리기는 완전한 자동장치인데 그런 형식으로 온도조절장치도 만들수 있지 않겠나요?》

(흠, 배짱이라...)

현호는 헛식은 웃음을 지었다. 물론 배짱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나 하는지.

수연이가 말하는 그 축전지관리기로 말하면 현호가 프로그램기술을 탐구하면서 만든 첫 정열의 열매이기 전에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공장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랑이 낳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녀이기도 했다. 현호가 그것을 만든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자연에너지를 널리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해놓고 나오는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시켜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고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태양빛전지판에 련결한 축전지들이 모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호는 그걸 보며 자기가 쌓은 지식을 시험쳐보는겸 충전과 리용을 컴퓨터에 의한 완전한 자동조절장치로 만들 결심을 품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조절장치의 기능을 충전 및 차단뿐아니라 축전지에서 전기가 소모되는 량과 제품에서 소모되는

전기량 등 모든것이 실시간으로 현시되게 다양하게 설계했다. 현호는 갖은 애로를 다 겪으면서 1년만에 그것을 만들어냈고 학위를 수여받았다.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공장을 위한 한 청년의 순결한 마음과 량심을 더 크게, 더 귀중히 여기어 크나큰 영예를 안겨준 어머니당앞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현호의 가슴속에는 더욱더 큰 욕망과 새로운 결심이 솟구쳤다.

(내 어찌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할수 있으랴. 공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

현호는 그때 벌써 자동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장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질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내놓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망설이고있었다. 그런데 수연이는 이 모든것을 환히 보고있는것처럼 자기에게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있지 않는다.

《아이, 뭘 자꾸만 생각해요? 난 동무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봐요. 아니, 꼭 해내야 해요. 두려울게 뭐가 있고 주저할게 뭐가 있어요? 이르는 곳마다에 배움의 전당, 과학기술보급기자들이 활짝 문을 열고있는데 말이예요.》

《미안하오, 수연동무. 사실 그 문제 내가 이미 전에 해본거요. 우리 공장실정에 맞지 않소. 난 솔직히 어제 한 시제품정도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자꾸 요구성을 높이는것보다 점차적인 방법으로...》

수연의 손에서 책들이 떨어졌다.

현호는 맥없이 가버리는 수연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묵묵히 서있었다.

3

창밖에는 어느새 총총히 별이 뜨고 은대야같은 달이 휘영청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방금전까지 포장용기들에 새길 그림과 상표의 형태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던 지배인방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기술인군협의회에 참가하였던 공장일군들이 만족한 얼굴을 해가지고 지배인방을 나왔다.

《허, 달이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래일이 정월대보름이구만.》

《아, 그래서 래일하루 푹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고 다음날부턴 전투라지 않소!》

지배인방에서 나와 공장구내를 걸어가던 수연이는 직장장들이 주고받는 말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휘영청 밝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밝은 보름달이었다. 정월대보름날에 하늘중천에 솟은 달에다 소원을 말하면 풀린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히웠다. 소원... 나의 소원은 무엇이던가?

소원이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수연이에게 간절히 바라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것이였다.

상점에 내놓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명제품, 온 나라 사람들이 즐겨찾는 명상품이 되는것이였다. 그러자면 온도조절장치연구가 빨리 진척되어 생산공정에 도입되는것이였다. 그다음은 또 무엇이던가?

문득 쟁반같은 보름달속에 현호의 흰칠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고보니 소원이 또 있었다. 그것은 현호가 다른 청년들보다 더 어엿하게 성장해서 장차 공장의 기둥이 되는것이였다. 이 소원은 현호의 동창생으로서 그리고 한공장에서 일하는 벗으로서 바라는것이라고 생각하던 수연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달아올랐다. 정말 그런걸까? 불현듯 지금 현호가 앞에 서있는것처럼 그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다.

큰 키에 뿔어깨가 짝 버그러진 끼끗한 체격이며 번듯하고 흰칠한 얼굴에 류달리 준수한 기품이 느껴지는 두눈과 강한 자존심이 력력히 어린 날이선 코마루, 자기의 감정을 서뿔리 드러내놓지 않는 점잖고도 무거워보이는 입술, 그러면서도 어줍게 웃을 때면 성격의 근본인 순박하면서도 침착해보이는 얼굴표정... 대학을 마치고와서 현호를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이는 하도 름름하게 성장한 현호를 몰라볼번 하였다. 다친 다리때문에 때로 지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두눈을 감았고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그런 현호가 프로그램장치를 연구하여 기술혁신을 하고 일을 성실히 하면서 대학공부까지 하였다는것을 알았을 때 수연이는 얼마나 놀랐던가!

그런데 창조적 인간, 정열의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정녕 우유부단하고 보수적인 그런 청년이란 말인가.

우수수- 찬바람이 불면서 감나무가지에 내려쨍았던 눈이 수연이의 머리우로 떨어졌다.

수연이의 눈길은 2층의 어느 한 창문가에서 멎었다. 연구사업을 하라고 공장에서 특별히 내준 작업실이였다. 어쩐지 그 창문가의 불빛이 더 유난히도 수연이의 눈을 부시게 했다.

1차시험에서 비록 실패했지만 수연은 낙심하지 않았다. 10번 아니, 100번을 실패한대도 기어이 성공하고야말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어서 오라 반기는듯 불밝은 작업실창가를 정찬 눈길로 바라보며 수연은 현관으로 들어갔다.

새벽 2시가 지나자 수연은 머리شم을 하려고 공장구내로 나왔다. 고요가 깃든 구내의 의자에 홀로 앉아 구름속을 헤엄쳐가는 달을 보느라니 불현듯 한해전 정월대보름날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도 작업실에서 한창 일하고있던 수연은 새로 짠 프로그램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하루종일 전진이 없이 계속 반복작업을 하느라니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서고말았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난 수연은 잠전에 어머니가 가져온 밥보자기를 들고 작업실문을 나섰다.

잠시후 현호와 마주앉은 수연은 아무 일도 없은 듯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기에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왔어요.》

놀라운 눈길로 보는 현호앞에 수연은 가지고온 밥보자기를 펴놓았다.

《내가 요즘 끼니를 넘긴다고 어머니가 뭘 좀 준비해가지고 왔더군요.》

정월대보름이라 여러가지 산나물에 오크밥을 비롯해서 없는게 없었다.

《이거 뭘 이렇게까지...》

입안에서 절로 도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현호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몸가짐마저 다 부자연스러워졌다.

《글쎄 이 많은걸 나 혼자 다 먹을수 있나요? 보지만 말고 어서 들자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우리 달구경이나 하자요. 창밖을 좀 봐요, 달이 얼마나 밝은가.》

수연의 두눈은 명랑하게 반짝이고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수연은 이미 준비하고 온듯 스케트를 꺼내놓으며 《현호동무, 우리 달구경을 하면서 스케트를 타자요.》 하는것이였다.

현호는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어 두눈만 껌벅거렸다.

얼마후 그들은 공장에서 멀지 않은 얼음판에서 스케트를 탔다. 처음에는 다친 다리때문에 좀 불편했지만 몇바퀴를 도니 몸의 중심이 잡혔다.

《아이, 그것보세요. 얼마든지 탈수 있지요?》

수연이는 너무 기뻐 손뼉까지 짹짹그르르 쳤다. 그리고는 자기도 스케트를 신고서 현호와 나란히 탔다.

《현호동무, 하늘을 봐요. 달이 중천에 떴어요. 난 방금 달에 내 소원을 말했어요. 동무도 조용히 소원을 말하세요. 그러면 소원이 풀린다나요, 호호호.》

(천진하거란...)

현호는 수연이의 모습이 꼭 칠부지소녀같이 어이 없는 웃음이 나왔다. 한바퀴 돌고 다시 현호옆에 온 수연은 《동무가 무슨 소원을 말했는지 제가 알아맞춰볼가요?》 하고 물었다. 이렇다하게 소원을 품은것도 없고 또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수연이가 짐작한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동해 현호는 짐짓 소원을 말한것처럼 하며 말했다.

《한번 맞춰보요.》

《음-》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수연이는 장난 꾸러기같은 웃음을 짓더니 말했다.

《그야 뻔하지요 뭐, 부디 선녀같은 처녀를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했겠지요.》

《하하하!》

현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흔들었다.

《왜, 내 말이 틀려요?》

《아, 아니요. 너무 잘 맞혔소. 신통하구만!》

그러자 수연이도 밝게 웃었다.

《현호동무, 왜 자동온도조절장치연구를 외면해요?》

수연이의 뜻밖의 물음에 현호는 아무 대꾸도 없이 스케트를 벗었다. 결코 심심풀이로 소원이야기나 하자고 이밤을 보내는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알았던것이다.

《그만 타지요.》 현호는 공장을 향해 걸어갔다.

《수연동무, 동문 대학졸업생이고 현장기사요. 그러니 즉흥적인 감정에 빠지지 마요. 자동온도조절장치는 아직은... 그러니 심사숙고하길 바라요.》

《예?! 그게 정말이에요요?》

현호의 말에 수연이의 얼굴이 금시 대리석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정말 동문 달라졌군요. 알겠어요, 다시는 동무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똑똑히 알아두세요. 자동온도조절장치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예요.》 라고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참을수 없는 항변이 어려있어 현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때부터 현호는 수연이와 별로 만나지 않았다. 그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수연이가 있는 작업실의 밝은 불빛만을 볼뿐이였다....

(내가 그날 아무래도 너무했어.)

생각에서 깨어난 수연은 천천히 작업실로 들어와 다시 컴퓨터앞에 앉았다. 미세온도조절프로그램이 원인모르게 잘 동작하지 않았다. 골머리를 싸쥐고 원인을 찾기에 지쳐버린 수연은 그만 저도 모르게 잠들어버렸다.

4

뽕뽕!—

이른새벽 공장구내를 흐드는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수연은 외톨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캄캄한 밖의 대기를 꿰치르며 비치는 전조등빛에 공장구내가 환히 비치여지자 그는 얼른 창밖으로 다가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하얗게 뒤덮인 공장구내에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차문이 열리고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내렸다. 공장경비성원이 와서 무어라고 말하니 그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사무청사 현관문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수연은 이른새벽부터 공장에 사람이 찾아오는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며 아직도 잠기가 가셔지지 않은 얼굴에 얼음같이 찬 물을 끼얹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가 세면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데 문기척소리가 울렸다.

(새벽에 누가...)

수연은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예.》 하고는 문가로 다가갔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더니 분명 차에서 내린 사람이 들어서

는 것이었다. 희속희속한 머리에 이마가 벗어지고 도수가 높아보이는 안경안에서 퍼그나 너그러워 보이는 두눈이 웃으며 수연을 마주보았다.

《수고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입니다. 새벽부터 안됐습니다.》

《예?!》

수연이가 놀라와 어리둥절해하는데 그는 웃으며 말했다.

《동무가 현장기사 리수연동무지요? 우리 현호동무가 그렇게 자랑하는…》

수연은 갑자기 갈피를 잡을수 없어 고운 눈을 깜박였다. 어쨌든 서있는 그에게 자리부터 권해야겠다는 생각에 후끈후끈한 난로결에 의자를 끄당겨 놓고 말했다.

《제게 무슨 일로 오셨는지 하여간 여기 앉아 몸부터 녹이십시오.》

《고맙소, 나보다도 현호동무가 몸을 녹여야 할 텐데.》

그는 창가로 다가가 차가 있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현호동무가 차에 있습니까?》

수연의 물음에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줄곧 얘기를 하며 왔는데 공장을 가까이했을 때부터 피곤이 물렸는지 잠에 들었소. 이제 깨우면 다시 못 잘거요. 조금만 더 재웁시다.》

《그런데 현호동무가 어떻게 선생님과 함께…》

수연이가 의문을 금치 못해하자 그는 웃음을 지으며 사연을 이야기했다.

…비련합기업소에서 새로 제작한 설비에 대한 협의회를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김철명교수는 뒤에서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하얀 반집자동차를 보았다. 아마 급한 일로 먼저 가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철명은 운전사에게 길을 내주라고 말하였다.

운전사가 승용차의 속도를 늦추며 길가녘으로 비켜서는데 뜻밖에도 그 자동차가 앞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자동차에서는 한 청년이 성급하게 내려섰다.

《무슨 일어요?》

승용차를 멈춰세운 운전사가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교수선생님을 만나뵈우려고 레의에 어긋나는줄 알면서도 이렇게…》

승용차의 좌석에 몸을 파묻고있던 교수는 아닌밤중에 자기를 찾는 청년이 있다는것이 하도 놀라와 차에서 내렸다.

《동문 누구요?》

청년은 교수를 보자 정중한 자세를 취하더니 《선생님, 가시는 길을 막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송흥식료공장에서 일하는 고현호라고 합니다.》 하며 허리굽혀 인사를 했다.

《그런데 날 어떻게 알고 무슨 일로 이렇게 불원천리 따라왔소?》

교수는 낮모를 청년이 밤중에 따라왔을적에는 기필코 남다른 사연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퍼그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현호는 순간에 어려움도 잊고 《교수선생님, 사실은…》 하고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공장에서 현장기사처녀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만들려고 혼자서 모대기고있는데 옆에서 보기가 너무 딱해 안타까와하던중 마침 비련합기업소에 조종프로그래밍전문가인 교수선생님이 왔다는것을 알고 찾아갔는데 이미 떠나고 없어 이렇게 따라왔다는 것이었다.

《음… 그런데 자네는 그 처녀기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안타까와하나?》

현호는 교수의 물음에 그만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참만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공장에서는 안된다고 신심없이… 선생님, 그를 좀 도와주십시오.》

교수는 손자별이나 되는 청년의 솔직한 대답에 속이 뜨거워났다. 그러나 그의 부락을 선뜻 들어줄수 없었다. 바쁜 교수사업과 연구과제가 겹치여 서둘러 가던 참이었다. 현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다시금 교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교수선생님, 다문 몇시간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자그마한 우리 공장에서도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식료품들이 줄줄이 쏟아지게 하려는 그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말입니다.》

교수는 그의 절절한 호소에 그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되어 승용차는 가던 길을 되돌아온 것이었다.

교수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수연은 머리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문득 현호가 아직 차에 있다는 생각에 수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제 가서 현호동무를…》

교수는 웅심깊은 눈길로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수연은 자기가 어떻게 단숨에 공장구내로 달려나가 승용차의 뒤좌석이 있는 차문앞에 멈춰섰는지 알수 없었다.

뽕얇게 성애가 불린 차창으로 혼곤히 잠든 현호의 모습이 보였다.

이런 청년을… 이런 현호를 나무라다니.

수연은 승용차문을 열어제꼈다. 문소리에 현호가 놀라 깨어났다.

《현호동무…》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현호는 수연이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니 《여기까지 지금… 공장이요?》 하고 물었다.

《그래요, 공장이예요.》

《그럼 교수선생님은?》

《작업실에 있어요.》

그제야 현호는 안도의 숨을 내긋더니 《난 또…》 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서들로 배가 불룩한 배낭을 가지고 내렸다.

《이게 뭐예요?》

《보오, 동무에게 아주 필요한것들이요.》

수연은 한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청히 굳어진 자세로 현호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호가 《뭘 좀 먹을게 없소? 배고파 죽을 지경이요.》하고 말할 때에도 수연은 그저 머리만 끄덕여보였다.

목이 짝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던것이다. 뿌연게 흐려지는 눈으로 현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수연은 한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5

어둠이 깃든 밤... 모든것이 안식의 꿈나락속에 파묻힌듯 하였으나 양상한 감나무가지사이로 엿보이는 창가에는 전등빛이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시간을 보세요.》

낮으면서도 긴장감이 실린 수연의 목소리에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이요.》하고 현호는 대답했다. 그들은 지금 자동온도조절장치에 대한 최종 시험을 하고있었다.

수연이가 전원단추를 누르자 온도조절장치에 파란신호등이 켜지고 액정판에 로안의 온도가 현시되었다. 이제 10분만 있으면 로안의 온도가 올라갈것이고 빵이 다되었다는 신호음과 함께 신호등이 켜지면 온도조절장치는 완전한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것이다.

책각 책각... 시계의 초침을 따라가며 시간을 쫓는 현호의 눈앞에 불현듯 지나간 일이 떠올랐다. 수연이가 공장에 배치받아온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수연이는 갈증을 앓고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있었다.

《그건 무슨 그림이요?》

어깨너머로 내려다보는 현호에게 수연이는 상긋 웃으며 그림을 보여주었다.

《한번 좀 봐줘요. 이건 빵견본을 그린건데 착상이 어때요?》

현호는 그림이 아니라 수연이의 얼굴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공장에 도입하자는거요?》

《그래요, 새롭고 독특한 형식으로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현호는 《하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걸 누가 또 봤소?》

《아직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지배인동지랑 공장종업원들에게 다 보이고 최종합의를 봐야지요 뭐.》

너무나도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수연이에게 현호는 권고했다. 《심사숙고하는게 좋겠소. 동무의 그 착상과 새로운 결심은 좋지만 그것이 과연 뜻대로 되겠는가 하는거요. 우리 공장에 대학을 졸업

하고 현실체험을 나왔던 한 청년이 있었소. 그도 동무와 같은 욕망을 안고 한동안 생산공정을 기술혁신한다며 뛰어다니더니 얼마 못 가서 큰 공장으로 소환되어갔소. 지금 공장사람들은 동무두 그렇게 날아가버릴 철새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있소.》

《그래요?》

수연이는 그림종이를 소중히 쓸어만지더니 나지막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 나도 철없을 때 봄아지랑이같은 꿈이 많았어요. 그러나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며 그려본 그것이 무슨 꿈이었겠나요? 철부지소녀의 한갓 허영심에 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 나의 가슴속엔 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장을 고향의 자랑으로 되게 하는거예요. 그러자면 만족을 몰라야 해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점령해야 해요. 그래야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고향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빵과 청량음료를 맛보며 웃고 노래를 부르며 피곤을 풀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예요. 난 그 소원을 안고 고향으로 왔고 공장의 출근부에 첫 도장을 찍었고 그 소원을 안고 일하고있어요.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겠어요. 내가 이 공장에 삶의 깃을 내린 새, 공장과 고향을 떠나 못사는 새라는걸.》

《뽁뽁!》하는 신호음소리에 현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액정판에 온도가 현시되어있었다. 수연이의 긴장된 눈빛이 현호의 얼굴에 와닿았다. 현호는 빵로의 배기변을 풀어 로안에 형성된 압력을 낮춘 다음 전원을 차단하고 빵틀을 꺼냈다. 순간 달착지근하면서도 향기로운 그윽한 빵냄새가 확 풍겼다. 해면같이 탄성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단설기빵과 속에 과일잠을 넣고 곁에 닭알물을 울린 속빵이 우아한 모양을 갖추고 한껏 부풀어있었다.

《아이, 어쩔!》

수연이는 기쁨이 짝 차올라 킁 막히는 가슴을 한손으로 붙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빵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이게 꿈은 분명 아니겠지요?》

《그렇소! 성공이요, 성공!》

현호도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그리고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동무, 내 이제는 알았소. 우리에게겐 만족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만이 있어야 한다는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더 높이 날자요.》

두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으나 웃고있는 눈가위에서는 눈물이 반짝였다.

성공의 아침도 어느날과 다름없이 조용히 밝아오고있었다.